



집주의 말씀

창2장 22절 ~ 34절



변의석 목사
영광침례교회 담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별명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라고도 말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블레셋 아비멜렉왕과 평화조약을 맺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1.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었다. (22

절)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아브라함 그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한 것이다. 사실 아비멜렉과 비골은 블레셋 사람들이다. 그들은 아브라함보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최고 권력자들이었다. 당시 최강국인 블레셋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이것은 칭찬이요 영광이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환경에 있든, 다른 어떤 말보다 ‘내가 보니 당신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십니다’라는 이 말을 들어야 한다.

2. 아브라함은 세상에 영향력 미치는 사람이었다. (23절) “그러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저되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 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 아니라.”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아브라함 선생님, 당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잘해준 것처럼 당신도 나에게 잘 대해주시지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우리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로 이 자리에서 약속합시다.” 누가 그랄 땅의 주인이 아비멜렉인가? 아브라함인가? 아비멜렉이다. 그리고 그는 그랄 땅의 왕이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은 이민자였고 나그네였다.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부탁하였는가? 주인이 나그네

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자신뿐 아니라, 자기 아들과 자신의 손자까지 부탁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아브라함은 그랄 땅으로 이민 온 이민자였고 나그네였지만, 그는 그랄 땅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 미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 오늘날 성도가 그렇지 못하는 것 같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고 있다. 성도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는 커녕,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변화시키는 온도조절기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으면서 그가 우물을 빼앗겼지만,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주었다. 그리고 나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 (30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거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이번에는 무엇을 했는가? 에셀나무를 심은 것이다. 원래 이 나무는 사막의 만나와 동일시 될 수 있는 나무이다. 이 에셀나무는 가는 앞에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그 그늘에 다른 나무 그늘보다 5-10도 이상 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에 에셀나무는 ‘최고의 안식’을 상징한다. 에셀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은 목마른 나그네와 여행객들의 그늘이 되어주는 매우 유용한 나무이다. 사막에서 우물을 만나며 이 나무를 만나는 것은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아브라함은 사막에서 매우 유용한 이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었을까? 이것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였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에셀나무의 덕을 보기 위해서 심은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다른 사람이 그 나무의 덕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은 것이다. 우물을 판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에셀 나무를 심은 것이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엡2:10절)” 아브라함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던 사람이었다.

외무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미술대전 특선 작가김창남 화백 그림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80. 가나의 혼인잔치(요2:1~12)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다. 이곳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 그리고 제자들도 혼인에 청함을 받았다.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혼인 잔치는 1~2주간에 걸쳐 길게 진행되었다(창29:27, 사14:12).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이 잔치에 예상외로 많은 손님이 왔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혼인 잔치가 끝날 무렵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했다.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막바지에 이른 잔치의 흥을 깨뜨릴 수 있는 주인으로서의 수치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마리아는 예수그리스도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 분명하다. 또한 자신의 입장과 인간적인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전적으로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을 행동으로 옮겼다. 그 결과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연회장에 갖다 주었던 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다.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기자는 이 후결혼식의 주인공들과 하객들이 어떠한 표현을 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이 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림=김창남 화백·글=김승원 목사

교육



홍경 교수
한국청조과학회 경주전남지부

교육부 공식 블로그에서 검색하여, 지난 호에 수록하였던 지층의 형성 과정을 요약하여 보자. ① 강물에 실려 온 자갈이나 모래, 진흙 등이 강의 하류나 흐름이 느린 곳에 쌓인다. ② 퇴적물이 운반된 순서대로 쌓인다. ③ 쌓인 퇴적물이 오랜 시간과 무게에 의해 단단해진다. ④ 지층은 아래에서 위로 쌓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지층이 더 오래된 것이다. ⑤ 바다나 호수, 강 바닥에 쌓인 각각의 층은 평행한 경우가 많다.

①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렇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②는 먼저 운반되어 온 퇴적물이 먼저 쌓인다는 것 또한 그렇다고 인정 할 수 있다. 나중에 운반되어 온 퇴적물이 먼저 쌓인다는 없지 않은가? ③은 그럴듯한 이야기이지만 하나 실험을 해 본 것은 아니다. ④는 아래쪽 지층이 먼저 쌓였을 터이니, 아래쪽 지층이 더 오래된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된다. 위쪽 지층이 먼저 쌓인다고 생각하기 힘들다. ⑤ 평행 지층이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다. 지구 표면의 75% 이상이 퇴적암이다. 이 퇴적암들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본 사람이 없다. 이미 생성된 퇴적암과 지층들을 눈으로 보고, 또 일상적 경험에 근거하여, 퇴적암 또는

지층의 생성 이론을 만든 것이다.

즉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해석한 것이다. 과거 사건의 해석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의 영역이다. 역사의 영역은 증인과 증언과 증거에 기반하여 판단 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에도 지층이 생성되고 있는가? 진화론적 지질학에 의하면 오늘날에도 지층이 생성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질학자들이 주장하는) 지층의 생성 속도가 너무 느려서 관찰하기 어렵다. 어느 정도로 느리길래 관찰하기 어렵다는 것인가?

지질학자들이 제시하는 지층 생성 속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층 생성 속도는 실험을 통해서 측정하지 않는다. 아니 할 수가 없다. 너무 느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가 계산을 해 보았다. 지층 생성 속도는 측정에 의해서가 아

밀턴의 《다윈도 모르는 진화론》 108쪽에 수록된 각 지층의 두께와 연대로부터 지층 생성 속도를 가장 아래쪽 지층으로부터 계산해보면, 고생대에 속하는 각 지층들의 퇴적 속도는 캄브리아기(12,200m, 0.7억년) 0.17mm/year, 오르도비스기(12,200m, 0.65억년) 0.19mm/year, 실루리아기(10,400m, 0.49억년) 0.26mm/year, 데본기(11,600m, 0.59억년) 0.23mm/year, 석탄기(14,000m, 0.65억년) 0.22mm/year, 페름기(5899m, 0.59억년) 0.12mm/year이다. 중생대에 속하는 각 지층들의 퇴적 속도는 트리아스기(9,100m, 0.35억년) 0.26mm/year, 쥐라기(13,400m, 0.55억년) 0.24mm/year, 백악기(15,500m, 0.75억년) 0.21mm/year이다. 신생대에 속하는 각 지층들의 생성 속도는 팔레오세기(3,600m, 0.11억년) 0.33mm/year, 사신세

역사전쟁(6)

나라 계산에 의해서 구할 수밖에 없다.

다윈의 《종의 기원》에 보면 지층의 두께와 연대가 수록되어 있다. 송철웅이 번역하고 동서문화사에서 출간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352쪽을 보면, 고생대는 5억 4천만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이며, 고생대 지층 두께는 57,154피트이다. 중생대는 2억 5천만 년 전부터 6천 500만 년 전까지이며, 중생대 지층 두께는 13,190피트이다. 신생대는 6천 5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이며, 신생대 지층 두께는 2240피트이다. 《종의 기원》에는 지층의 생성 속도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 않는다.

위의 자료로부터 계산해보면, 고생대의 지층 퇴적 속도는 0.06mm/year, 중생대의 퇴적속도는 0.02mm/year, 신생대의 퇴적속도는 0.01mm/year 이다.

이제영이 번역하고 AK에서 출간한 리처드

(9,100m, 0.16억년) 0.57mm/year, 점신세(7,900m, 0.15억년) 0.53mm/year, 충신세(6,400m, 0.11억년) 0.58mm/year이다.

《종의 기원》의 자료와 런던에 있는 대영박물관의 주지주상도 자료를 이용한 지층 생성 속도는 서로 판이하게 다르다. 사실 각 지층의 두께는 지역마다 다르고, 지질주상도 상의 모든 지층이 있는 지역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리처드 밀턴이 이용한 위의 자료는 런던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된 지질주상도에서 얻은 것이다. 리처드 밀턴은 그 지질주상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이 지질주상도는 방사성 측정법에 따라 연대가 매겨졌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퇴적암들은 방사성 광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

더군다나 원리적으로 퇴적암의 연대는 방사성 연대측정법으로 알 수 없다. 화성암에 대해서만 방사성 연대 측정법을 이용할 수 있다.

외무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건물 매매 · 임대

광고 문의

T.062) 367-9109 F.062) 367-9108

※ 예배당, 기도원 등 교회 관련 부동산 매매 및 임대광고입니다.



교회당 임대

- 위치: 북구 우산동(2층)
- 면적: 40평
- 개조: 깨끗하게 리모델링 됨
- 금액: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 ※비품 상당 후 결정

010-3618-5946

교회 건물 매매

- 위치: 광산구 수원동
- 면적: 대지 656㎡ 연강벽 1505㎡ 지하1층-주차장 492㎡ 지상1층-본당 376㎡ 2층-교육관 385㎡ 3층-식당 251㎡
- 금액: 상당후 결정

010-3602-3228

교회 임대

- 위치: 광산구 도산동 (송정서초 근처) 2층
- 면적: 50평(예배당, 목장실, 유아실, 주방, 식당)
- ※깨끗하게 올리모델링
- 금액: 보증금 1,000만원 50만원
- ※시설,비품 상당 후 결정

010-9212-1474/010-4102-3092

교회 매매

- 위치: 남구 진월동 대주2차아파트 상가2층
- 면적: 34.5평 (예배당, 주방겸 교육관)
- 금액: 1억2천만원(대출 3천2백만 포함)
- 성물집기포함, 가격조정가능
- ※리모델링, 교통, 주차편리

010-2200-8905

교회 건물 매매

- 위치: 광산구 신성로(신정지구)
- 면적: 대지 67평 건평 80평 1층-예배당 40평 2층-사택 및 식당 40평 부속건물-중 이층 유아실, 방송실
- 금액: 7억 5천만원(대출 2억5천5백만 포함)
- ※리모델링친환경 황토 및 편백

010-9661-9099

교회매매

- 위치: 북구 오치동 금호타운상가 2층
- 면적: 30평 (예배당 / 주방겸 카페)
- 금액: 1억 5백만원
- ※리모델링 됨 ※교회비품 모두 무료
- ※주차 편리

010-2606-6529/010-6811-0656

교회 매매

- 위치: 전남 무안군 일로읍 (도청까지 차로 5분거리)
- 면적: 대지 114평 교회 40평 사택 20평 식당, 창고, 화장실
- 금액: 1억 5천만원
- ※성물 외 집기포함

010-4630-0091

다가구 원룸매매

- 위치: 북구 두암동(588-1) 홀플러스 신광중부근 버스정류장3분거리
- 면적: 대지 45.82평 연68.47평 1층 주차장, 2~4층 원룸 12개
- 금액: 5억 5천만원(보6백50만/월3백만 포함)
- ※대부분 교통편리, 건물상태좋음

010-2217-2427

교회당 임대

- 위치: 북구 두암동
- 면적: 30평(3층)
- 금액: 보증금 500만원 월25만원
- ※시설·비품 있음

062-953-1377

교회당 임대

- 위치: 서구 금호동(금호지구대 근처)
- 면적: 31평(3층)내부시설 깨끗하게 리모델링
- 금액: 보증금 1,000만원 월60만원
- ※교회비품 상당후 결정

010-8615-2539

교회당 임대

- 위치: 남구 대남대로 289-1
- 면적: 47평 예배당(반지하) 방2개, 주방, 화장실(1층)
- 교회-유아실, 목회사무실 있음
- 금액: 보증금 500만원 월35만원

010-4149-8300

교회건물매매

- 위치: 북구 설죽로 471번길 77 일곡사거리 북광주우체국 옆-전철2호선 일곡사거리역 옆
- 면적: 대지-72평, 건평-110평 1층 주택 30평, 교육관 및 사무실 25평 (화장실별도) 2층 교회 본당 40평 3층 유아실, 방송실 15평 (실지대 대형 창고 포함)
- 금액: 건물 및 교회비품포함 5억 5천만원

010-2518-8291

교회당 건물 매매

- 위치: 광산구 우산동
- 면적: 대지 185평 (교육관, 식당) 2층-본당 90평 3층-약18평 별관-20평 사택
- 금액: 11억원 ※시설비품, 성도 있음

010-2646-2691